

##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 김사무엘 선교사 / 2002. 1. 11 -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그리스도께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의 뜻은 "무게, 가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그리스도의 구원자로서의 역할 "사명" 임무를 다하게 하시므로 그분의 무게를 "참모습을",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위대한 일을 완성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땅에" 이 세상에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목수의 아들이요, 나사렛이라는 빈촌에 태어난 고운모양은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분으로 세상에 비취진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주신 위대한 사명인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훌륭히 완성함으로 메시아로 오신 바로 그 이름의 내용과 약속과 기대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 졌을 때 아들이 영화롭게 될 것이요.

이 아들이 영광을 얻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예배하며, 순종하는 일이 드디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영광을 받은 일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인정을 받고 경배를 받는 일은 이렇게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들의 삶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이요, 아들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있어 그의 일을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구세주로서 영광을 얻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전 말씀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 안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므로 그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들어 섬기게 됩니다.

세상 권세인 권력과 재력과 탐욕과 거짓과 음란 등 죄의 지배 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주신 창조주 여호와와 권세로 이들을 해방시켜 자유케 함으로 구원자로 오신 그분의 영광을 곧 그 이름의 내용을, 무게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심으로 자신도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란 바로 이 사명,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만민에게 선포하고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죄와 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아들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기쁨과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3절에서는 영생을 얻은자로 썼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에게 거저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심이요, 바로 이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발견한 죄인들이 "아바, 아버지" 라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드림으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완성입니다. 전하는 자의 사명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모든 자들에게 나타내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리하여 어둠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영혼의 어두움을 구원의 빛으로 밝히셔서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취어 주시기를 지금도 소원하시며 우리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땅 끝까지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의 빛진 자로 살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